강호동-유재석 맞짱 2라운드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illegible] www.metroseoul.co.kr

태극호, 2차전 징크스는 없다

"더 빨리"…이통사 속도경쟁 불붙다

"고객 눈높이 맞추자" 광대역 LTE-A 출시

SK텔레콤의 광대역 LTE-A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이동통신사의 속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소비자의 TV 이용 행태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진데다 초고화질(UHD) TV로 고객 눈높이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지하려는 업계 움직임도 초고속 추세에 힘을 싣는다.

SK텔레콤은 19일 세계 최초로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이번 주말을 전후해 삼성전자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 출시 협약을 마치고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이통 3사가 속도 경쟁에 나서며 광대역 LTE-A가 통신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듯하다.

광대역 LTE-A는 기존 LTE보다 3배, 3G보다 15배 빠른 최대 225Mbps 속도를 구현한다. 1GB 용량의 영화 한편을 37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1.8GHz 대역의 20MHz 폭 광대역 LTE주파수와 800MHz 대역의 10MHz 폭 LTE주파수를 묶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기술을 적용했다.

경쟁사들도 광대역 LTE-A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KT와 LG유플러스도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이다.

양사는 삼성전자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 출시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는 이미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예약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도 구체적인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로부터 단말기를 수급받는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보다 3배 빠른 속도를 강조한 광대역 LTE-A는 가입자들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새로운 서비스에 맞춰 요금제·특화 서비스 등을 속속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출퇴근 중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지하철 프리 요금제를 이날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월 9000원을 부담하면 서울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내에서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성장하는 자녀나 자세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 '영글스'도 공개했다. 영글스는 최대 4명이 동시에 촬영한 고화질 동영상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고 스마트폰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게임 플랫폼 '클라우드 게임'도 소개했다. 클라우드 게임의 경우 실제 게임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행하고 이용자는 실행 화면만 실시간 전송받아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하는 대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통사들의 속도 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사업자들은 이르면 2015년 상반기 광대역 LTE-A에 또 다른 대역의 주파수 10㎒ 폭을 묶어 전송속도를 300Mbps까지 높인 3밴드 광대역 LTE-A를 상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속도 경쟁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연말에 3밴드 광대역 LTE-A가 시작되면 고객은 단말기를 또 바꿔야 한다"며 "기술 진보가 너무 빨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속도 경쟁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한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역시 "속도 경쟁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니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달라"며 "고객을 단순히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승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평창에서 태어난 흰사슴 '길조' 기대 강원 평창군 봉평면 김모(71)씨의 사슴농장에서 지난 18일 흰사슴이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 희망을 주는 길조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 2002년 한국의 4강 신화가 이뤄졌던 한·일월드컵에도 강원 농장에서는 흰 사슴이 태어났다. /연합뉴스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법원

법외노조 판결에 항소하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헌 위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은 잃는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전교조는 "1심 재판부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직 이르다"며 "다음주에 바로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illegible]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한-카자흐 정상 만찬장으로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행사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창극 '버티기' 언제까지…

"총리 공부 열심히 할 것" 발언에 靑 곤혹… 여권 내 불가론 확산

정치권의 자진 사퇴 압력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문창극 불가론'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 후보자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밤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 압박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다. 정홍원 총리가 경제문제를 답변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정 총리 답변하는 것을 열심히 보면서 저도 한번 배우겠다"며 당당히 말해 취재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당 내의 기류는 '사퇴 불가피론' 쪽으로 더욱 굳어졌다. 전날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재가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문 후보자 카드를 계속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다음 달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문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의 위기감도 작용했다.

청와대도 곤혹스러워졌다.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 국정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후보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한 친박 핵심인사는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불가쪽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며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굳어져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민준기자

누구를 위한 신뢰 회복인가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땅에 떨어진 증권사에 대한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여러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증권사처럼 단순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 대해 '고객신뢰'라는 달콤한 명분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달 홈페이지에 고객에게 보내는 장문의 서한을 게재했다.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회사의 영업 방식을 과감하게 고객 관점으로 가져가겠다' 등 부진한 현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방식이 전형적인 '톱다운 식(상의하달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더러 고객은 여전히 뒷전이라는 데 있다. 유행을 타는 펀드나 레버리지 펀드 등 복잡한 구조에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은 아예 신규 판매를 하지 않겠다니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사다.

특히 날로 진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이런 방어적인 영업방식은 증권사로서의 직무유기로도 보인다.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다며 내놓은 서비스 역시 투자상담자격을 갖춘 인력의 콜센터 배치였다. 이미 각종 채널을 통해 방대한 투자정보를 접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뻔한 정보가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고급 금융투자 지식을 원한다. 그런데 투자자 교육 확대가 아닌 콜센터 확대로 대처한다니 이는 고객을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줘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변화라면 정글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국내 투자자들만 더 고립시킬 뿐이다.

게다가 한화는 업황이 좋을 때엔 가만히 있다가 업황이 좋지 않으니 증권가의 관행을 비판하는 우도 범했다.

진정으로 고객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겸허하고 조용하게 내부의 변화를 꾀하는 편이 낫다.

중·장년층 위한 취업박람회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1층 로비에서 40개 기업 또는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열려 많은 시민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與, 박상은 해운비리 연루 의혹 자체 조사

● 새누리당은 19일 당 윤리위원회에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진위 여부와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에게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첫 간선제 총장에 성낙인 교수

● 성낙인(64)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출됐다. 서울대는 19일 교내 호암 교수회관에서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비공개 투표로 성 교수를 제 26대 총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장 선거는 서울대 사상 첫 간선제다. 기존에는 직선제였으나 서울대가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野,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검' 당론 채택

●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른바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상설특검 1호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지도부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도입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북 핵시설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

핵무기 개발에 골몰하는 북한이 핵 관련 시설 근무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 국제기구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 같이 증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핵시설 근무자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지급하지만 근로조건이나 안전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에서 일했다는 탈북자를 면담한 결과 "그는 자신이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근무지에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지 전혀 듣지 못했다"며 "금광에서 일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평산의 우라늄 광산에서 일한 탈북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앤드루 낫시오스 공동위원장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당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주의 구조가 대기근이나 북한 정권의 정치·경제적 개혁 거부 등으로 인해 천천히 부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현정기자

'불끄기의 날' 행사 진행

서울시 금천구는 오는 9월까지 매달 22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행복한 불끄기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생활 절전 의식화를 위해 필수 참여, 참여 유도, 자율 참여 대상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횟집 등 위생 점검 실시

서울시 강서구는 비브리오 패혈증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활어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횟집, 일식집, 초밥집 등 44곳 업소로 오는 25일까지 조리 시설 및 식자재 취급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다.

21일 '노다지 장터' 운영

서울시 노원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원구청 보건소 앞에서 '노다지 장터'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벼룩장터를 운영, 의류·도서 등 재사용 가능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

정종섭 후보 '자기표절' 심각

논문 중복 게재 잇따라 드러나…진실성 논란 확산

국내 대표 헌법학자로 꼽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정 후보자가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2005년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과 내용·문장이 상당 부분 겹쳤다.

또 20년 전인 1995년에는 학술지 '헌법학연구'에 '특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이 논문과 제목·논문 각주 등이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의 글을 정기간행물 '인권과 정의'에 실었다.

1991년 법과사회이론학회의 '법과 사회'에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논문 같은 해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사법행정'에 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대안적 방향', 1993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에 게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논문도 절반 이상이 중복게재 됐다.

200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민과 변호사'에 실린 '현 단계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혁 방안'도 이들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기존 논문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이거저거 거듭 싣는 중복게재 행위는 '실적 부풀리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금지되며 '자기표절'로도 불린다. 서울대법대 학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헌법학회장을 맡은 국내 대표 헌법학자이자 엘리트 연구자에게 연구진실성 문제가 잇따라 불거져 정부 측도 당황해 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과거 정 후보자는 "연구성과는 가능한 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좋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혀주면 독자에게 친절한 것일 수 있지만 반드시 명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신웅기자 mjian@metroseoul.co.kr

맷돌 체험하는 어린이들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식생활교육박람회에서 어린이들이 맷돌을 돌리며 콩가루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금수원 안근 놀이동산 압수수색

도피 조력자 추씨 아들 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오전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인근에 위치한 '놀징글벨랜드'를 압수수색했다.

놀징글벨랜드는 금수원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놀이시설로 썰매장과 동물체험장 등이 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소유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가운데 한 명인 추모(60·구속)씨를 체포한 뒤 추씨와 동행해 해당 놀이동산을 수색했다. 유씨 부자나 핵심 도피 조력자인 이른바 '김 엄마' 등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추씨의 아들을 범인은닉도피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버지 추씨는 지난달 24일 순천 현지에서 유씨의 도피를 돕다가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윤다혜기자 yolit@

고층아파트 엘리베이터 급하강 '아찔'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가 급하강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서울 구로경찰서와 구로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5분께 13층짜리 아파트의 한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 상승했다가 갑자기 추락해 3층과 4층 사이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이모(29·여)씨 등 주민 2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가 3분 만에 구조됐고 손목과 허리 통증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사고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권상기 교체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낡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교체한 부품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yolit@

고려인 모국 방문단 동해항 도착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150여 명의 고려인 동포 모국 방문단이 19일 강원 동해항에 도착, 꿈에 그리던 모국땅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 0.05% 면허취소 아냐

법원 "음주단속, 차 몬 시점 7분 후…취기 오르기 전 고려"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몬 시점에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면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윤모(44)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4잔을 마신 뒤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다. 호흡을 통한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딱 걸리는 0.05%가 나왔다. 윤씨의 재측정 요구로 이뤄진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를 훌쩍 뛰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통상 술을 마시면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친 후 시간당 0.008%~0.03%씩 농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윤씨의 첫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나온 때는 차를 멈추고 7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뒤 30분이 지나고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0.092%로 상승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노 판사는 윤씨가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음주 단속 당시 언행·보행 상태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함께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inkim@

3사관학교 첫 여생도 모집…경쟁률 48대 1

육군3사관학교 첫 여생도 모집에서 지원자 경쟁률이 48.1대 1을 기록했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2015학년에 입교할 3사관학교 여생도 20명 모집에 96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생도 380명 모집에는 1787명이 지원, 경쟁률 4.7대 1을 기록했다. 여생도를 처음 받는 52기 3사관학교의 전체 경쟁률은 6.9대 1이다.

3사관학교는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및 체력검정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52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24일이다. /조현정기자 hj@

서울 뉴타운 8곳·재건축 2곳 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신길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역은 30%(추진주체 미구성) 및 50%(추진주체 구성)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곳이다. 신길동 외에 ▲광진구 자양동 246-10, 243-7, 216-9 ▲강북구 미아동 681 ▲은평구 수색동 309-8 ▲동작구 흑석동 204-9 ▲영등포구 신길동 314-4 ▲노원구 상계 3·4동 지역 1구역 8블록 2롯트 일대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중랑구 묵2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 해제했다. /정연분기자

고3 교사 초청 컨퍼런스 개최

서울여자대학교는 최근 고교 3학년 교사 500여명을 본교 학생누리관 이벤트홀에 초청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교사들이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년도 논술출제위원장의 논술고사 해설 특강이 진행됐다.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телефоном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metro France

on dans l'eau

수중 스쿠터 레저기구 '인기'

프랑스에서 사람 미관 미록의 레저 기구가 인기다. 전기 엔진이 장착된 이 기구는 작은 수중 스쿠터라 할 수 있다. 기구에 부착된 핸들을 잡고 있으면 물 속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기구를 개발한 파스칼 세로 대표는 "시봉을 잡고 있으면 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다 안에서는 엔진 운동 덕분에 다소 힘들도기 떨어진다"고 밝혔다.

metro Brazil

Governo barra im[p]
de calçados, lápi[s]

원산지 미표기 상품 수입 금지

브라질 정부가 원산지 미표기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는 브라질 개발·산업·대외무역부가 12월 대만과 말레이시아산 신발과 연필, 자물쇠에 대해 이뤄진 원산지 착위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끝마친 후에 이뤄진 조치다. 조사는 말레이시아의 Meh 마주 인더스트리 사가 수출한 신발류에서 시작됐다. 제품에 이뤄진 원산지 표기가 한 몇 있었던 것. 거대 시장인 브라질로의 수출 길이 막히자 해당 회체는 변경계 청소할으나 기각됐다.

"스마트폰 맛있게 씹어먹죠"

요가 수행 남성 '괴기쇼' 눈길…초콜릿 전화기로 바꿔치기 의심도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클럽에서 한 요가 수행자가 휴대전화 중이 쇠붙이 등을 먹지는 대로 먹어 눈길을 끌었다.

쇼의 주인공은 가기모모 요가 행 "스바미 프렘티엔". 그는 자신을 인도의 유명 고승 쉬르디 프렘 사이 바브의 제자로 소개했다. "10년 간 고도의 정신 수양을 한 덕분에 무엇이든지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치아와 위를 갖게 됐죠. 물건의 재질에 관계없이 모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프렘티안은 지난 2007년 20만 달러(약 2억원)를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시계를 먹어 치워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그는 "이번 쇼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알루미늄 소재"라며 "액정은 물론 파손 방지를 위해 설치한 유리까지 전부 먹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프렘티안의 쇼를 자세히 보면 수상한 점이 많다. 특히 프렘티안은 자신이 먹을 스마트폰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뒤 앞에 놓인 그릇에 넣는다. 이후 그는 공중에서 기를 모으는 제스처를 취한 뒤 전화기를 다시 꺼내 든다.

쇼를 지켜본 남성은 "딱딱한 전화기를 씹어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 프렘티안이 그릇 속에서 진짜 전화기를 초콜릿으로 만든 휴대전화 모형과 바꿔치기한 것이 틀림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프렘티안은 "정신 수양을 오랫동안 한 고승만이 할 수 있는 수행"이라며 "쇼는 모두 진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행의 목적이 전화기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요가를 통해 체내 장기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페테르부르크 요가 센터장 유가 보도바는 "요가 가운데 고렴의 수련법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련을 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의 쇼는 가짜"라고 말했다.

/올가 슬가토바 (러시아)·조선미기자

metro Nicaragua

es que se
en en una
de cerveza

'맨땅에 헤딩'하니 새 맥주가 나왔다?

중남미의 소국 니카라과에서 불굴의 의지로 첫 국산 맥주를 만들어낸 청년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호세 마르셀 산체스(29)는 5년 전 미국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맥주가 있는데 니카라과에서는 왜 아무도 맥주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매형인 아두아르도 멘디에타(39)와 새로운 맥주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산체스는 "니카라과 사람들이 즐기는 맥주는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었다"면서 "색다른 맛을 자랑하는 고품질 맥주를 선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맥주를 만들기 위해 깨끗한 물을 구해야 했고 맛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연구소도 만들어야 했다. 심지어 보준 맥주 제조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애를 먹었다.

가장 큰 난관은 맥주의 필수 재료인 맥아와 호모를 니카라과에서 찾지 못한 것이었다. 해외 공급자를 직접 수소문해 일일이 찾아가야 했다. 니카라과 사람들이 맥주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도 이들이 넘어야 할 관문이었다.

산체스는 "많은 사람들이 독한 맥주가 쓴 맛을 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니카라과 최초의 흑맥주는 알콜 농도가 높으면서도 단맛을 낸다"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 힘든 때도 있었지만 니카라과 맥주는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맥주는 현재 니카라과 번화가의 유명 술집과 레스토랑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엘리자 마구스시아 리바스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100세 시대, 헬스케어·건강식품 뜬다

2026년 5명중 1명 65세↑ ··관련주 2배 이상 상승

고령화 시대를 맞아 '유병장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건강식품 업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는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일 가능성이 크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은퇴 준비 못지 않게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 중이다. 이들 업체의 주가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

19일 코스닥시장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업체인 인성정보의 주가는 지난해 말 3600원에서 지난 18일 현재 8390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나노엔텍은 지난 2010년 8000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고꾸라진 뒤 반등에 성공해 현재 6600원선까지 회복한 상태다.

바이오스페이스 역시 지난해 말 5700원에서 최근 1만6000원선까지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모바일 헬스케어의 핵심은 IT·모바일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관련 기기들은 중소형 병원이나 요양원, 가정집에서 각종 질병 수치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인성정보와 나노엔텍, 바이오스페이스 등 모바일 헬스케어 업체들도 대부분 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다.

인성정보는 가정에서 혈압·혈당·심전도 등을 측정해 원격으로 의료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휴케어 제품과 소프트웨어(SW) 등을 선보인다.

나노엔텍의 대표 제품은 혈액이나 요 등으로 체외진단하는 현장검사 기기이다. 바이오스페이스는 체성분 분석기 등을 주로 다룬다.

모바일 헬스케어 업종 기대감이 주로 기기 제조업체에 쏠리는 이유는 수익성 측면에 있다.

김대원 SK텔레콤 가연사업2본부장은 "모바일 헬스케어도 진단장비 업체, 시스템 관리 업체, 병원 등으로 시업 확장이 쉽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관련 단계 간 이견이 있어 모바일 헬스케어의 본격적인 시장 형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건강식품 시장도 속속 주식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코스닥에 상장한 중국 건강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씨케이에이치는 올 들어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다.

KDB대우증권은 전날 효소와 식품 관련 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미코젠에 대한 기업 보고서를 게시했다.

홍삼 제조업체인 대동고려삼도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시장에 입성한 뒤 순항 중이다.

코스피 상장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업체 뉴트리바이오텍을 인수한 뒤 이 부문 쪽으로 주력사업을 전환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기대수명이 늘면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고령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이색 채용설명회 LG디스플레이는 15일 강북대·부산대·전북대, 전남대 이공계 학생과 교수 600여 명을 구미 사업장에 초청해 직무상담·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해 설명하는 '테크니컬 특…'을 개최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르삼, 미니밴 출시

르노자동차 미니밴 '에스파스'의 후속모델이 올 가을 파리 모터쇼에서 데뷔한다.

5세대로 진화한 에스파스는 차체를 낮춘 덕에 현재의 모델보다 날렵한 인상이다. 앞모습에는 르노의 디자인 수장인 로렌스 반덴애커가 만든 패밀리룩이 적용됐다.

이 차가 흥미를 끄는 것은 2014 부산 모터쇼에 선보였던 '르노 이니셜 파리' 콘셉트카를 그대로 닮았다는 점이다. 해외 언론에 포착된 테스트카는 콘셉트카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콘셉트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실내는 양산차에 어울리게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스파스 후속에는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개발한 CMF(Common Module Family) 모듈형 플랫폼이 적용된다. 새로운 엔지니어링 콘셉트인 CMF는 자량을 엔진 주변부와 운전석, 프런트 언더 보디, 리어 언더 보디 등 4군데로 모듈화 해서 부품 설계를 공용화하는 개념이다. 에스파스는 올 가을 파리 모터쇼에서 공식 데뷔하며, 올해 말 또는 2015년 초부터 본격 시판된다. /장대학기자 farrar@

100대 기업 국내 신용평가, '거품 논란'

AA+가 해외 BBB+로 6계단 차이

포스코·GS칼텍스, 괴리 가장 커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돈을 받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고평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100대 기업이 국내외 국제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 등급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평균 'AA+' 등급을 받은 반면 해외 성적표는 5계단 아래인 'A-'에 그쳤다. 특히 민간 기업의 국내 신용시 등급은 전체 평균치인 'AA+'이었지만, 해외에선 'BBB+'에 그쳐 간극이 6계단으로 더욱 컸다.

포스코·GS칼텍스 등은 국내와 국제 신용평가 간극이 최대 8계단으로 평균치보다도 커 '등급 거품'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해 매출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을 조사한 결과, 국내 및 해외에서 모두 신용평가를 받은 33개 기업의 국내 평가 등급은 평균 'AA+'인 반면 해외에서는 'A-(6.8)'를 받아 등급 괴리가 5.2에 달했다.

공기업과 은행을 제외한 15개 민간 기업으로 추려보면 국내 신평사 평균 등급이 AA+(2.2)인 반면, 해외에서는 'BBB+(8.5)'를 받아 국내외 괴리가 6.3으로 더욱 컸다.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 간극이 가장 큰 곳은 최근 AAA(1)등급에서 한 계단 강등돼 AA+(2)가 된 포스코다. 해외평가 등급 평균 조정수치가 9로, 국내와 8계단 차이가 났다. 국내 평가등급이 해외보다 36%나 높은 셈이다. 포스코는 무디스로부터 Baa2(9), S&P BBB+(8), 피치 BBB(9)의 등급을 받았다.

GS칼텍스도 무디스와 S&P에서 10등급인 Baa3과 BBB-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2등급인 AA+로 8계단 차이가 났다. 이어 현대제철·LG전자·에쓰-오일·롯데쇼핑·SK하이닉스·현대제철 등이 국내에서 AA(1)~A+(5)의 등급을 받았지만 해외에서는 BBB+(8)~Ba2(12)에 그쳐 7계단 간극을 보였다.

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KT·SK텔레콤·SK종합화학·이마트·포스코건설·SK E&S 등은 국내서 받은 최소 등급이 AA-(4)였지만 해외에서는 BBB-(10)로 6계단 차이가 났다. /김하균기자 kaz@

market index <19일>

코스피	1992.03	(+2.54)
코스닥	538.79	(-0.28)
금리	2.68	(-0.15)
환율	1019.00	(-5.00)

뉴스&뉴스

덤블러에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9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뜰에서 동서식품의 '카누 아이스' 홍보 행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휴게소도 무궁화등급 표시

●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호텔처럼 '무궁화 5개' 같은 등급이 붙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매년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수준을 이용자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 휴게소에 5단계로 등급을 매겨 공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고등급을 받은 휴게소는 입구의 간판에 무궁화 또는 별 5개가 붙으며 건물 현관에는 '최우수 휴게소'라고 표시된다. /유주영기자

15억원 호가 우표 전시

● 우정사업본부는 우표 1장에 수십억을 호가하는 세계 희귀우표를 오는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필라코리아 2014 세계우표전시회'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시될 희귀우표에는 미국에서 발행된 '뒤집힌 제니'(사진)와 영국령 가이아나에서 색깔이 잘못 인쇄된 '2센트 우표', 중국 최초로 발행된 '5 Candarin large dragon', 세계 유일의 '모리셔스 우표' 증명문서 등이 이름을 올렸다.

1918년 발행된 '뒤집힌 제니'는 원래 우편용 비행기인 '커티스 제니'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지만 실수로 위아래가 뒤집혀 인쇄되는 바람에 유명해졌다. /서승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02)721-9800, FAX (02)72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91
2004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04

냄비 그을음, 간단히 없애려면…

천순이 주부 경제학

요리할 때 종종 냄비를 태운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탄 냄비를 철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면 코팅이 벗겨지고 녹이 슬 수 있다. 주방기구의 수명은 얼마나 세심하게 손질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탄 냄비를 찬물 위에 미지근 식혀준다. 냄비가 완전히 식으면 안에 있는 음식물을 비우고 비눗물을 부어 팔팔 끓인다. 이렇게 끓이면 웬만한 그을음 때는 30% 정도 벗겨진다. 끓는 비눗물로 닦아내고도 그을음이 남아 있으면 다시 냄비를 뒤에 엎어 물기를 말린다. 물기가 마른 다음에는 냄비 바닥에 기름(가정용 식용유)을 조금 부어준다. 마지막으로 까칠까칠한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내면 냄비 바닥이 깔끔해진다.

과일을 이용해서도 냄비 그을음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사과, 레몬, 오렌지와 같은 산성 과일이 효과적. 사과 껍질이나 레몬, 레몬 껍질 등과 물을 함께 넣고 팔팔 끓인 다음 물을 빼내고 탄 부분을 수세미로 닦아 주면 된다. 아주 손쉽게 탄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또 베이킹 소다를 냄비 탄 부분에 뿌려 준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탄 부분을 닦아주면 깨끗하게 제거된다. 물과 베이킹 소다를 함께 끓여도 냄비 그을음을 말끔하게 없애고 소독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다. 식초를 이용한 방법도 있다. 물과 식초를 1대 1 비율로 섞어 팔팔 끓여준 뒤 물을 버리고 수세미로 닦아주면 냄비 탄 부분이 없어진다. 이외에도 김빠진 콜라를 탄 냄비에 넣고 끓인 다음 내용물을 버리고 냄비를 닦으면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정리=기자

게임도사 한국 우세 점쳐

'브라질 월드컵'서 알제리戰 승리
풋볼데이 2대1, 피파온라인3 1대0

온라인 축구게임 시뮬레이션이 축구예상계의 초공도사 이영표 못지않은 예측력을 보여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16강 진출을 가늠할 23일 알제리전에서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점쳐 온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다.

지난 18일 러시아전 1대1 무승부를 정확히 맞춘 NHN엔터테인먼트 축구게임 '풋볼데이'는 알제리전에서 한국이 2대1로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1만 회 돌린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한국과 알제리의 평균 골수는 2골과 1.4골로 나왔다. 이를 경기별 가중치와 골 득점 변수를 설정해 전체 평균 골수를 정수화하는 방식으로 추출한 결과 한국이 2대1로 승리한다는 것이다.

평균 유효 슈팅률은 한국 50.92%, 알제리 47.2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평균 슈팅은 양국이 11회로 같았다. 평균 점유율은 52%대 48%로 한국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다. 평균 패스성공률은 한국 63.46%, 알제리 56.94%다.

대신 기성용과 이청용이 평점 7.6점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손흥민과 이용이 평균평점 6.7대를 기록해 승리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도 이날 러시아와의 경기를 2대 1로 승리해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지을 것으로 풋볼데이는 예측했다.

넥슨의 온라인 게임 '피파온라인3'도 알제리전 승리를 내다보고 있다.

100차례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은 알제리와 100전 31승 45무 24패를 기록했다. 한국과 알제리의 평균 골수는 1.27골과 0.9골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한국의 1대 0 승리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손흥민이 평균득점 0.29골로 알제리전 활약이 기대됐고 박주영(0.21골)과 구자철(0.19골)도 승리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넥슨은 서울 서초동 넥슨아레나 e스포츠 경기장에서 23일 오전 4시(한국시간) 열리는 알제리전의 단체 응원전을 펼친다. 이날 0시부터 벨기에와 러시아의 경기 관람, 축구 전문가의 알제리전 예측 토크 등이 이어진다.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도 특別 공연으로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한다. 넥슨 아레나에서는 27일 벨기에전 단체응원도 펼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19일 넥슨아레나에서 열린 단체응원전에서 이근호의 골에 관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넥슨제공

"한국, 인터넷 선진국 도약해야"

전길남 교수, 상용화 20주년 기념 강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인터넷 강국으로 불렸다면 이젠 인터넷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전길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사진)는 19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터넷 상용화 20주년과 기가(GIGA) 시대' 특별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에 대한 숫자놀음은 이제 접어야 한다. 그보다는 본질, 퀄리티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길남 교수는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1990년 4월 23일 KAIST CSRC 재임 시절 국내 최초의 전용선에 의한 인터넷 연결을 주도해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

1994년 6월 20일 KT가 국내 최초로 '코넷(KORNET)'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주년을 맞았다. 서비스 초기 월 4만원에 평균 속도 9.6Kbps 속도를 제공하던 인터넷 서비스는 현재 평균 속도 100Mbps를 자랑한다. 일부 지역에선 1Gbps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년새 속도가 10만배 빨라진 셈이다.

전 교수는 "20년 전에도 오늘과 같은 인터넷 시대는 생각했지만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초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TV, 전화, 자동차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주도한 만큼 지금 실생활에 밀접해진 인터넷 이용 모습은 예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만든 전 세계인의 데이터가 과거 인류 역사 2000년간 만든 데이터보다 많은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교수는 "앞으로 스마트폰 중독, 모바일 메신저 중독, 보안 문제 등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가 계속 발생할텐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요청할 때 비로소 인터넷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며 "KT가 우리나라가 인터넷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재영기자

홈플러스, 레드 푸르츠 프로모션 19일 홈플러스 잠실점에서 모델들이 체리와 토마토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대추방울토마토와 워싱턴 체리 450g 팩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레드 푸르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홈플러스 제공

대구·경북 부동산시장 "꺾일 줄 모르네"

대구·경북 부동산시장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강세를 보이다 2·26대책 발표를 계기로 침체 모드로 돌아선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시·도시에서 가장 높은 3.5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3.18%를 기록한 경북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99% 상승했고, 수도권은 0.68%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영남권인 부산과 울산, 영남지역 아파트값도 0.44%, 1.22%, 1.04% 상승했을 뿐이다.

하반기 입주 프리미엄 상위 1~5위를 차지한 아파트도 대구·경북에 몰려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의하면 하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 중 경북 경산시 중산동 '펜타힐스 서한에이스' 공급면적 111㎡와 141㎡가 6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분양시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최근 1년간 대구에서 분양된 31개 단지 가운데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는 19개다. 6개 중 1개는 1순위에서 주인을 모두 찾은 셈. 전국 평균 1순위 마감률이 22.43%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대형을 찾는 수요가 있고, 지역 부동산시장 분위기도 좋은 편이라 큰 집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급여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대한상의, '2014 임단협 가이드' 발표
통상임금·정년연장등 대응방안 제시

경제계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통상임금·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간 쟁점에 대한 교섭방안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9일 노동시장 제도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2014년 임단협 대응방향 가이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노동시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판결,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가이드에서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점 제시했다. 우선 통상임금 관련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하기보다 노동조합·근로자와 성실한 대화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폐합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보상과 연계한 성과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임금의 과거 소급분과 관련, 노조와 소급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리스크를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는 준비없는 정년연장은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신규채용 곤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정년의무화 대안으로 선택적 정년제 도입을 제시했다. 선택적 정년제도는 정년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시점을 선택하는 대신 별도의 퇴직수당 내지 위로금을 주는 제도다.

이어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신규인력 채용여력 저하 등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제도의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종합개편에는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급상한제, 직급별 체류연한 조정 등의 직급체계 개편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등이 있다.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은 서로 연결된 문제로 이번 임단협을 통해 종합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노동시장 환경 대변화를 노사는 반드시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환경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할 경우 정부가 컨설팅, 인건비 지원, 임금보전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균기자 kkim@metroseoul.co.kr

해외 긴급 금융사고, 이렇게 대처…

"월드컵 한국경기를 눈앞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브라질로 여름휴가를 떠난 박수원(34·가명)씨. 그는 러시아전을 보고 난 다음 날 쿠이아바를 관광하던 중 가방이 찢겨 텅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방 속에는 카메라와 여권, 여행지에서 사용할 여행자 수표와 현금이 들어있던 터라 박 씨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따로 넣어둔 신용카드 한 장과 휴대폰만 남은 그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19일 금융감독원은 박씨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해외에서 긴급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금융 긴급사고 대응 요령' 포켓북을 제작·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 씨처럼 해외에서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귀국 후 보험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다면 수표 발행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여행자수표 회사별 분실신고·재발행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상찬기자

뽀송하고 안전한 장마철 보내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다이소 종각점에서 열린 '다이소 여름용품 기획전'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여름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기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장(앞줄 오른쪽)이 희망의 집 고치기 활동을 위해 자재를 나르고 있다.

대림그룹,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

대림그룹은 지난 18일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에 위치한 개미마을을 찾아 희망의 집 고치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대림산업, 대림I&S, 대림C&S, 삼호, 고려개발 등 대림그룹 내 건설 업종 관련 관계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림그룹 임직원들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 6곳을 방문해 오래된 낡은 창호와 장판을 교체했다. 또 습기가 많은 여름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세대 내부 단열작업과 곰팡이 제거, 도배 작업을 함께 했다.

봉사에 참여한 김한기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장은 "대림그룹의 계열사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한 봉사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림그룹은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이통사 광고보면 전략이 보인다

SKT 1등·KT 친근함·LGU+ 젊음

광대역 LTE-A 시대와 월드컵 시즌을 맞아 이동통신 3사 광고 모델에 변화가 생겼다. 각 통신사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추구하는 향후 전략을 감지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1등 굳히기에 나선다. SKT는 19일 오전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광대역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설명회에서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를 신규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SKT는 2010 밴쿠버올림픽 이후부터 김연아 선수를 광고 모델 1순위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선수의 기타 일정으로 계약이 불발되다 이번에 성사됐다.

KT의 광고모델은 친근한 분위기의 연예인 기용으로 차별화한다. 그동안 KT는 국악소녀 송소희의 판소리 광고, 중견 배우 한진희와 이혜숙의 드라마 패러디 광고로 대형 스타 없이도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유행어 '끝!'의 개그맨 조윤호와 방송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배우 장현성이 KT 올레 모델로 활동 중이다. 이밖에 KT 일반인과 아기 모델 등을 광고에 활용하며 장수기업다운 친숙하고 가족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SK텔레콤은 19일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발탁한 광고를 공개했으며, KT는 개그맨 조윤호, LG유플러스는 지드래곤과 박지성 선수가 나오는 광고로 각각 1등, 친근함, 젊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각사 광고

LG유플러스는 인기 아이돌 빅뱅 멤버인 지드래곤을 모델로 발탁한 광고를 방영 중이다.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지난 5일부터는 박지성 선수가 지드래곤과 함께 나온 광고가 방영 중이다.

/양은희기자 unique@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ashionN
follow me 3
매주 수요일 밤 12시
그렇고 그런 뷰티쇼들
낚였어?
tcast

'모바일 명가' 컴투스 글로벌 기업 '우뚝'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 기업 컴투스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다.

내놓는 작품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체 글로벌 플랫폼이 주목받으면서 블루칩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컴투스 주가는 1만8000원이었지만 지난 16일 5만4600원을 기록하며 7개월 만에 3배가 뛰었다. 컴투스 재도약의 1등 공신은 '낚시의 신'과 '서머너즈 워' 전공의 아레나'다.

◆낚시의 신 해외에서 월척 낚다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낚시의 신'(왼쪽 사진)은 최근 전 세계 일일 게임 접속자수(DAU) 최대 130만 명, 누적 다운로드 수 1300만 건을 돌파하며 출시 2개월이 넘도록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자체 게임 플랫폼인 컴투스 허브를 통해 국내외 마켓에 출시된 직후 69개국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순위 TOP 10에 진입하고 72개국 스포츠 장르 부문 1위에 등극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였다.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28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것은 물론 홍콩과 마카오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매출 순위 1위에 등극하며 아시아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나날이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세계 전역에서 고른 인기를 얻으며 막강한 글로벌 파워를 자랑해왔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낚시를 소재로 게임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프랑스어, 독일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하며 편의를 제공했다.

◆글로벌 자기 주자 '서머너즈 워'

글로벌 3000만 다운로드에 육박한 컴투스의 히트작 '홈런배틀' 시리즈의 정민영 PD가 총괄한 RPG(역할수행게임)인 '서머너즈 워'(오른쪽)는 글로벌 서비스 1주일 만에 홍콩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순위 1위에 등극한 것은 물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게임 최고 매출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총 49개국 RPG 장르 부문 매출 톱10을 기록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도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해외 출시 초반부터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컴투스의 글로벌 진출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자체 개발한 야구게임 '9이닝스' 시리즈의 3D 신작과 SNG '골프스타', RPG '타이니팜드' 등 주요 기대작들을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다음, MMOFPS '플래닛사이드2' 공개

소니온라인엔터테인먼트(SOE)에서 개발하고 포털 다음이 서비스하는 MMOFPS(다중 접속 1인칭 슈팅 게임) '플래닛사이드2'의 오픈베타 서비스가 18일 오후 3시 시작됐다.

'플래닛사이드2'는 FPS 최초의 전쟁을 경험해볼 수 있는 대규모 MMOFPS다. 신흥연합군, 테란공화국, 바누지자국 등 3개 세력의 대립을 주 배경으로 하며 소속 세력의 자원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주요 미션이다.

보병전, 기갑전, 공중전과 같은 다양한 전투를 전략적으로 펼칠 수 있으며 생략자원 지형 등의 요소들을 활용한 전투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수 천명의 게이머가 한 공간에서 실시간 전투를 펼치는 오픈월드형 게임이기 때문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스케일의 게임 방식이 많은 게이머들의 시선을 사로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한글화, 유명 성우 더빙 등 국내 현지화에 집중해왔으며 비공개 테스트와 PC방 테스트 등을 통해 서버 안정성과 콘텐츠 밸런스 등을 점검했다.

또 게임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영상을 공개하고 초보자를 위한 조교 서비스를 도입했다.

세력별로 존재하는 조교 20여명은 게임 내 상주하며 문자와 음성 채팅을 사용해 게임 플레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안내를 맡는다.

또 CBT 기간 선정된 100여명의 엘리트 리더들에게 아웃핏(길드)을 창설하도록 지원해 분대 플레이를 활성화하도록 준비했다. 사전에 선발된 종군기자도 게임 내 다양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게임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OBT를 시작하며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18일부터 7월16일까지 캐릭터를 생성하기만 해도 무기아이템, 경험치 부스터 등이 포함된 패키지 아이템을 100% 지급한다.

/박성훈기자

아틀란 모바일게임·내비 제휴

같은 이름의 인기 모바일게임과 내비게이션 밖이 만났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아틀란스토리 for Kakao'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맵퍼스의 '아틀란3D 클라우드'가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동명의 게임과 나비게이션 간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이번 제휴 프로모션은 12일부터 7월17일까지 열린다.

프로모션 기간 중 '아틀란' 앱을 내려받고 '아틀란3D' 공식 페이스북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으로 순금 한 돈, 영화 예매권, 아틀란스토리 for Kakao VIP카드, 바나나 맛 우유 기프티콘 등 총 143명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박성훈기자

리니지2 커뮤니티 사업팀 강정수 팀장, 컨텐츠 사업팀 조상원 팀장, 생활디자인 2팀 강현정 팀장, 개발실 안지선 지장(왼쪽부터) /엔씨소프트 제공

"기본에 충실한 게임 만들었죠"

리니지2 '클래식 서버' 산파역 4인 인터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가 지난달 28일 온라인 최초의 '시민 혁명'으로 평가받던 '바츠해방전쟁'으로 뜨거웠던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클래식 서버'를 새로 단장해 오픈했다.

사전 캐릭터명 생성 이벤트에서 3만 여개의 캐릭터가 만들어질 만큼의 호응은 서버가 열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서버 '말하는 섬'이 열리고 30분 만에 동시접속자 제한 7000명을 채워 두 번째 서버 '글루디오'를 열었으나 이틀 후인 5월30일 세 번째 서버 '기란'을 추가로 열었으며 지난 11일에는 네 번째 서버 '아덴'까지 오픈했다. 또한 게임트릭스 PC방 사용률 집계 10위권으로 복귀했다.

리니지2 개발과 사업 담당자들이 소감을 밝혔다.

-클래식서버 추가 기가는

안지선(개발실 지장) "'기본에 충실한 게임을 만들자'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했다. 자신이 투자한 시간만큼 결과물을 얻는 게임을 만들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클래식 서버 흥행의 핵심 이유다. 클래식 서버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는 막막했다. 이미 10년된 게임이 아닌가.

과거의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완성시키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게임이 실행도 되지 않고 문제가 많았다. 그러던 중 어느 수준을 넘어서자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서 개발실에서도 "만세"가 터져나왔다."

-클래식 서버 등장 후 혈맹 관련 이야기도 뜨겁다.

강정수(커뮤니티 사업팀장) "과거 유명했던 혈맹들인 'DK'나 '네리포터'도 지금 다시 돌아서 클래식 서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거나 유저들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상태다. 물론 혈맹의 등장이나 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평균 레벨대가 20정도이긴 하지만 이미 첫 번째 혈맹 전쟁을 선포한 곳도 존재한다."

-리니지2는 분쟁이 잦은 게임이다. 게임사 측에서 유저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조상원(콘텐츠 사업팀장) "오토게임과 일반 유저의 분쟁, 서대 혈맹과 일반 유저들의 반목도 있다. 오토가 사냥하고 있는데 몬스터를 몰아놓고 리스타트를 한다거나 사냥터를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박성훈기자

지긋 지긋한 허리, 목 디스크 진화된 고주파 치료로 10분이면 끝

10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라 부담 없어 특수 미세경 통해 전문의가 환부 확인 후 치료

유명 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어느 날 아침 양말을 신다가 허리 통증, 오른쪽 다리 당김과 통증이 발생해 근처 척추 전문병원을 찾았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S씨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결국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자 S양과 같은 방송인 런닝맨에 출현 중인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방문했다.

이승주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S씨를 진단했다. 그리고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국내 유명 연예인들과 체육인들이 주로 받은 고주파 디스크술로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S씨의 통증은 호전됐고 S씨는 치료 당일 퇴원했다.

또 과거 불후의 명곡 및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국내 최고 보컬 가수 휘성은 군 복무 중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으로 강남조이스병원을 내원했다. 이 원장은 S씨와 마찬가지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휘성의 상태를 파악한 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이후 휘성은 방송활동을 재개했으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런닝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가수 김종국과 개리도 휘성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돼 현재 방송 활동 및 런닝맨 촬영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강남조이스병원이 시행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국소 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위치시킨 후 환부를 직접 관찰하며 튀어나온 디스크를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10분 정도면 치료가 끝난다. 또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그리고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이승주 원장(왼쪽)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개그우먼 김민경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맞춤형 치료로 환자 회복에 중점

이와 함께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일저 진료를 실시한다.

진단 후 초·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 환자들은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게 된다.

또 병원은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척추 치료를 선진 체계화했다.

특히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 치료, 그리고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근육·인대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치료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인근에 목·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팔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척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센터를 개설해 합리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문의 1800-3800 /황재용기자

자가 검진으로 유방암 예방하세요~

조기 발견땐 생존율 90% 이상…40대 이후 정기검사해야

유방암은 재발이다 전이가 잘 되는 암 중 하나지만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그만큼 높아진다. 실제로 조기 발견한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은 90% 이상이다. 이에 유방암 자가 검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양·색·분비물 확인해야

먼저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두 팔을 몸에 붙인 후 양쪽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지, 피부가 두꺼워진 곳이다 멍든 것처럼 색이 변한 곳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깍지 낀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 양쪽 유두의 위치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검·중·약지 세 손가락을 이용해 유방을 직접 촉진해야 한다. 손가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 위 아래로 번갈아 가며 유방을 쓸어 보거나 겨드랑이부터 유두에 이르기까지 나선형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만져보며 멍울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손으로 만져볼 때는 유방 외에도 가슴 중앙선과 쇄골 아래를 포함한 부분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한 팔을 머리 위에 올리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상하좌우로 젖꼭지를 눌러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젖빛 분비물이 나오거나 덩어리가 만져질 경우, 유방 및 유두의 함몰이 눈에 보이거나 피부가 오렌지 껍질같이 거칠어진 경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또 유방암 자가 검진은 생리가 끝나고 2~5일 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은 매달 임의로 지정된 날에 자가 검진을 해야 하며 샤워할 때 비눗물을 묻혀 유방을 만져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김종민 민병원 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유방암 환자 중 40대 여성 환자 비율은 서구 여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편이다. 40대부터는 정기적인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며 20~30대 젊은층도 매달 유방 자가 검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뇌졸중은 신속한 대처가 관건'

뇌졸중학회, SK와이번스와 '시간은 뇌' 캠페인

팀 SK 와이번스와 "신속한 대처로 뇌졸중을 극복하자 시간은 뇌(Time is Brain)"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뇌졸중 응급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측은 2014년 프로야구 시즌 마감일까지 인천 문학경기장을 찾는 야구팬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SK 와이번스의 간판 투수인 김광현 선수는 삼진 1개당 8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시즌 종료 후 뇌졸중 후유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안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등이 주요 증상인 뇌졸중은 사망원인 2위인 위중한 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황재용기자

/대한뇌졸중학회 제공

어린이 상비약, 캠핑 필수품!

벌레물림 치료제, 습윤밴드 등 꼭 챙겨야

캠핑을 떠나는 인파가 늘고 있지만 외부 환경이 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캠핑을 갈 때는 다양한 상비약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먼저 여름에는 모기가 가장 큰 적이다. 모기에 물렸을 때 아이들이 환부를 긁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대약품의 '둥근머리버물리액'과 같은 벌레물림 치료 제품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사전에 정향유 등 천연 성분으로 제조된 해충 기피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면 바위나 나무에 의한 찰과상을 입을 수 있다. 이때는 흉터 없이 피부 재생을 돕는 습윤밴드가 필요한데 한국엔디파마 '메디폼', JW중외제약 '하이맘밴드', 대웅제약 '이지덤' 등이 있다. /황재용기자

내일 오픈!
NEW OPENING
PMC KIDS
북서울 꿈의숲
여름 특별 체험전
조기예매 아동 10,000원 할인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STEP 1.
보들보들~
부드러운 가루길 산책!
STEP 2.
온 세상이 하얀 가루세상!
가루나라 방앗간
STEP 3.
가루의 달콤한 변신
빵빵나라 제빵소
STEP 4.
상상이 현실로!
반죽나라 국수가게
STEP 5.
자연은 내 친구!
흙밀나라 정미소
2014.6.21(토)~ 9.14(일) 북서울 꿈의숲 상상톡톡 미술관
[예매] ticket 인터파크 티켓 YES24.COM AUCTION
[문의] 02)738-8289
나무야나무야 전용관 탄생!
나무친구랑 놀GO ~ 타GO ~ 만들GO ~
2014.6.1(일) ~ OPENRUN
유니버설아트센터
바투바투, 가루야가루야에 이은
이영란의 새로운 감성놀이터
나무야 나무야
나무야 나무야 와 브레멘음악대
15,000원 + 브레멘음악대 관람권
참여방법

르네상스서울 호텔

르네상스 호텔 '윤달 웨딩 프로모션'

서울 강남에 위치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윤달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올 하반기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부부에게 풍성한 혜택을 선사할 계획이다.

우선다이아몬드볼룸에서 예식을 진행하면 스페셜 메뉴를 1인당 7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와인 20% 할인과 피아노 3중주 연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유니버설 홀의 경우는 프로모션 메뉴가 1인당 5만5000원에 제공되며 청첩장은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증 인원 기준으로 예약하는 모든 커플에게는 웨딩슈즈 브랜드 브라이드 연유에서 10만원 상당의 슈즈 교환권을 선물로 준다. 문의 02)2222-8600 /황재용기자 hsoul38@

"출근 10시! 아니면 일찍 모여"

사내 단체 월드컵 응원으로 직원 사기 높이기 일석이조

지난 18일 출근길 진풍경이 벌어졌다. 월드컵 러시아 전을 보기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을 10시로 늦추는가 하면 아예 일찍 회사에 모여 단체 응원을 펼쳐 눈길을 끈 곳도 있다.

패션그룹형지(대표 최병오)는 브라질 월드컵 단체관람으로 사내단합 기회를 마련했다.

이 회사는 오전 7시에 열린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첫 경기를 맞아 역삼동 본사에서 사내응원전을 진행했다. 본사 임직원 가운데 선착순 200여명을 모집해 사옥 강당에서 응원을 펼쳤다. 계열사인 우성I&C의 임직원 100명 역시 신관에 별도 스크린을 마련해 응원 열기에 동참했다.

두 기업은 이날 김밥과 음료수 등 아침식사를 무한제공해 직원들의 편의를 도왔고 본부별로 응원 티셔츠·응원봉·부채·풍선 등 응원 도구를 제공해 적극적인 응원 분위기를 돋웠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회사의 '허그(Hug) 캠페인'을 기념해 주위사람들에게 마음을 적극 표현하자는 캠페인 취지로 팜볼 포옹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세정(대표 박순호)의 아웃도어 센터폴 사업부 임직원들도 대치동 사옥 강당에 모여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단체 응원을 펼쳤다.

윤재익 센터폴사업부장 외 50여 명의 임직원들은 당일 전사적으로 출근시간을 10시로 조정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평소 출근시간보다 두 시간 가량 빠른 오전 7시부터 강당에 모여 응원 티셔츠를 맞춰 입고 경기를 시청했다.

코오롱FnC(대표 박동문)가 전개하는 스포츠브랜드 헤드도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직원들이 일찍이 사무실에 모여 한국대표팀에 승리를 응원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도 한국 진출 15주년을 기념해 브라질 월드컵 응원전을 펼쳤다. 직원들과 고객이 함께 본사 강당에 모여 월드컵 응원을 통해 신나는 스타벅스 경험을 하자는 취지로 준비됐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김희주기자 kimzip1004@metroseoul.co.kr

스타벅스 제공 보시제공

수제 미쓰고로케 창업 인기

식물성 기름 사용, 당일 제조·판매 지켜

수제고로케 전문점 미쓰고로케 창업이 인기다. 강남에 가면 강남고로케, 명동에는 명동고로케, 불광동에는 미쓰고로케가 유명하다. 그 명점 그대로 불광동 미쓰고로케에서 드디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미쓰고로케는 깨끗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며 "오늘 만든 빵은 절대 내일 팔지 않습니다"를 모토로 당일제조 당일 판매 원칙을 지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미쓰고로케는 야채와 고기가 어우러진 옛날고로케, 청양고추와 특제 소스가 가미된 매운 고로케, 단팥·호두고로케를 비롯해 그릴 소세지, 샐러드, 계란, 치즈 소세지 등이 인기판매중이다.

평수는 5평에서 20평까지 다양하게 창업이 가능하며 테이크아웃 매장과 아이스크림·커피·팥빙수를 같이 판매하는 카페형 복합매장도 운영한다. 또 푸드카 창업도 가능하다. 도넛과 고로케 종류는 15종류이며 매일 가맹점에서 직접 구어 판매한다.

업종전환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하여 창업비는 1500만~3950만원까지 지역 상권이나 매장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이 업체는 전국지사 체인점을 모집중이다. www.미쓰고로케.com / 창업문의 2068-5844

/정경일기자 jeong@

시금치의 화려한 변신… 건강에 도움

애니메이션 뽀빠이 등 통해 친숙해진 시금치는 손꼽히는 건강식품이다. 채소 중 비타민C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당질·단백질·지방·섬유질·칼슘·철 등의 영양소도 듬뿍 들어있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시금치크림리조또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576kcal / 조리시간 30분

[재료] 쌀 120g, 휘핑크림 300g, 시금치 100g, 올리브오일 1큰술, 마늘 2개, 바지락 20개, 새우 10마리, 화이트와인 50g, 양파 30g, 맑은육수 1.5리터, 소금, 후추

①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넣어 향을 낸 후 불을 세게 해 조개와 새우를 넣어 살짝 볶다가 화이트와인을 부어 날린다. ②조개에서 나온 육수에 다진 양파를 넣어 뭉근한 불에서 볶다가 올리브오일을 넣고 쌀을 함께 볶다가 생크림을 넣는다. ③쌀이 거의 익은 뒤 볶아놓은 조개와 시금치를 넣고 볶은 후,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하고, 올리브오일로 마무리한다.

◆시금치라비올리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399kcal / 조리시간 30분

[재료] 만두피 40장, 시금치 100g, 계란노른자 2개, 파마산치즈 4큰술, 올리브유 1큰술, 스파게티소스 1컵, 소금, 후추

①볼에 시금치 다진 것, 계란노른자, 파마산치즈, 소금, 후추를 넣고 잘 버무린다. ②도마 위에 만두피를 줄 맞춰서 깔고, ①을 셀 주머니에 넣어 만두피 중앙에 동그랗게 짠다. ③만두피를 각각 맞닿아 벌어지지 않게 한 후 ②의 가장자리를 모양 틀로 예쁘게 찍는다. ④끓는 물에 올리브오일과 소금을 넣고 ③의 라비올리를 데쳐내 물기를 뺀다. ⑤냄비에 스파게티소스를 넣고 끓여 데친 라비올리를 넣고 살짝 버무려 낸다.

◆시금치샐러드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290kcal / 조리시간 20분

[재료] 시금치 70g, 양송이버섯 4개, 베이컨 4장, 파마산치즈치즈 1큰술, 레몬드레싱 4큰술, 레몬주스 1/2컵, 올리브오일 1+1/2컵, 소금, 후추

①연한 시금치 잎으로 준비해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이어서 양송이 버섯은 껍질을 벗겨 모양을 살려 얇게 썬다. ②잘 달군 팬에 베이컨을 구워 기름기를 닦아 내고 잘게 썰어 준비해 놓는다. ③접시에 시금치 깔고 그 위에 양송이버섯과 베이컨을 얹은 뒤 파마산치즈를 뿌리고 레몬 드레싱을 곁들인다.

화려한 컬러 아이 메이크업 도전해볼까

컬러 아이라인은 깔끔하게 그려야 언더라인에만 포인트 주는 방법도

여름이 되면 화려한 컬러의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이 쏟아진다. 이런 제품들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여성이 많다.

이애란 MBC아카데미뷰티스쿨 천안캠퍼스 원장은 "컬러 제품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밋밋해지는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기 알맞다"며 "베이스 메이크업은 가볍고 심플하게 표현하되 청한 컬러의 아이라이너나 섀도 등을 사용해 눈에 포인트를 주면 시원하면서도 개성 있는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인기 컬러는 단연 블루다. 시원한 느낌이 여름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또 신비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퍼플 컬러를,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은 오렌지 계열의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쌍꺼풀이 짙은 눈은 아이 메이크업에 힘이 들어가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컬러 아이라이너 사용 전에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 부분을 채워준다. 만약 둥글된 눈이라면 전체적으로 컬러를 넓게보다는 눈꼬리 쪽에 살짝 포인트만 줘야 눈이 더 둥글어 보이지 않는다. 눈이 작고 찢어진 편이라면 인상이 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컬러로 포인트 준 메이크업 완성

평소 사용하던 브라운이나 블랙 계열의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의 점막 안쪽을 꼼꼼히 메워준다. 그리고 그 위에 컬러 아이라이너로 원하는 눈매를 그린다.

/MBC아카데미뷰티스쿨 제공

컬러가 들어간 아이라인이 너무 두꺼울 경우 부담스럽거나 촌스러워 보인다. 또 펄이 함유된 컬러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때는 선이 깔끔하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아이라인의 중간부터 끝부분까지 한 번 그린 후 앞꼬리부터 중간까지 그려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이렇게 완성된 아이라인 위에 비슷한 컬러의 아이섀도를 살짝 얹어주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볼 수 있다.

조금 더 개성 있는 눈매를 연출하고 싶다면 아이라인에 사용된 컬러와 다른 컬러의 아이라이너나 섀도를 언더라인에 터치해주는 것도 좋다. 화려한 느낌이 다소 부담스럽다면 눈 전체에 컬러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언더라인에만 사용해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지전의 경우 생기가 있어 보이는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한다. 눈 컬러에 맞춰 립스틱 컬러를 고르되 누드톤을 기본으로 하고 과하지 않은 핑크나 코랄 계열의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장혜선 기자 hjune0404@metroseoul.co.kr

속옷 미니 패션쇼 리바이스 바디웨어가 19일 서울 명동에서 '2014 맨즈헬스 쿨가이 선발대회' 우수 후보자들과 함께 '벨벳 드로피칼 언더웨어 패션쇼'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출시된 언더웨어 시리즈는 열대 지역 식물 프린트 및 색상과 패턴 등이 조화돼 화려하면서도 시원한 바캉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이템이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월드컵 기간 빨간색 제품 할인 이벤트

아동복·주방용품·완구 등 품목도 다양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이다. 유통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얼어붙은 지갑을 열기 위한 마케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색상인 빨간색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업체들이 눈에 띈다.

제로투세븐의 유아동복 브랜드 알로앤루 알퐁소에서는 18일부터 대한민국의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알로앤루는 6종, 알퐁소는 5종으로 자녀들의 월드컵 응원열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레드 컬러 중심의 유아동 상·하의로 구성됐다. 제품들은 브랜드 캐릭터로 포인트를 살렸으며 스트라이프, 도트 패턴을 더해 발랄하고 경쾌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기획전 구성품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로투세븐 제공

종합주방용품기업 PN풍년은 레드 컬러 제품들을 약 한 달간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7월 14일까지 PN풍년이 입점된 전국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되며 오메라스K 압력솥 '포시어미오 냄비'와 레드 색상의 주방소품들을 반값에 살 수 있다. 또 PN풍년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16강 진출시 2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이스라떼 기프티콘을 보내준다.

디밥비(dibubbi)는 레드 컬러가 들어간 '야다도야 뉴마티나' '스쿠스쿠 유아식탁의자' '이탈트라이크 붕붕카' '브토이 승용완구' 등 8종의 제품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 경기 전날 이벤트 페이지에 경기 최종 스코어를 예상해 맞히는 사람 중 추첨을 통해 8종의 제품 중 1종을 제공한다. 또 한국 국가대표팀이 승리를 거둘 경우 경기가 끝난 시점부터 당일 밤 12시까지 8종의 레드 상품 1만원 추가할인 쿠폰을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준다. /장혜선 기자

오디바이크, 남한강 자전거길 페스티벌

지난 15일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한 '남한강 자전거길 페스티벌'이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는 양평군청이 주최하고 오디바이크가 주관하는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을 기념한 자전거 퍼레이드로 구성됐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으로 시작으로 김선교 양평군수와 최엽규 오디바이크 대표이사가 참가비의 10%를 세계 자전거구호협회에 전달하는 구호 자전거 전달식이 이어졌다.

/오디바이크 제공

이포보까지 왕복 24km 초급코스와 여주보까지 다녀오는 48km 중급코스로 구성된 이번 퍼레이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구성돼 있지만 경사가 높은 후미개 고개가 포함돼 있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자전거 후미등과 전통시장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됐다. /김학철기자

'이민정·신민아도 응원' 패션업계, 월드컵 프로모션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우리 붉은 악마들을 위해 패션업계에서 다양한 승리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핸드백 브랜드 빈치스벤치(대표 김상중)는 2014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해 파이팅 코리아(FIGHTING KOREA)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빈치스벤치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16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들에게 대한민국 응원 타올을 선물로 증정한다.

인디에프(대표 정시영) 여성복 브랜드 조이너스 꼼빠니아 예츠 에스비는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I LOVE KOREA!'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브랜드 전국 매장에서 8만원 이상 구매객에게 선착순으로 신민아가 입고 있는 네버기브업(Never Give up) 티셔츠를 증정한다.

패션 쇼핑몰 멀티캡에서는 응원 댓글 달기, 퍼즐게임, 응원 음식 추천하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브라질 공인구 브라주카부터 무료 영화 쿠폰, 멀티캡 적립금까지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학철기자

"팬들이 귀엽대요. 멋있고 싶은데"

'SNL'부터 '하이힐'까지 개성 만점

고경표

19금 코믹연기부터 정극까지 다재다능
힙합·R&B 그림그리기 취미도 다양

배우 고경표(25)는 잘 생겼지만 댕랑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개성 있는 외모를 지녔다. 2010년 데뷔한 후 양아치 역부터 19금 코믹 연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다. 실제로 만난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만취 동영상'을 게재한 실수를 부끄러워하고, 좋아하는 힙합·R&B 음악을 얘기할 땐 눈이 빛나는 20대 중반 청년이었다.

◆ 오정세 역할 해보고 싶어요

영화 '하이힐'에서 전설적인 형사 윤지욱(차승원)을 존경하는 순백 진우 역을 맡았다. 윤지욱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비밀을 알았음에도 응원한다. 선배가 유일하게 챙기는 여인 장미(이솜)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장미를 좋아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윤지욱이 여우 여자나 만나는 사람이 아닌데 유독 장미를 생기거든요. 진우는 호기심이 생긴 거죠. 장미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걸 지그시 바라보는 장면이 편집됐어요. 감독님과 상의했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상황 같다고 해서 뺐졌죠."

오정세가 맡은 허곤 역을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로 꼽았다. 허곤은 조직의 2인자지만 형사 윤지욱을 경외하는 엉뚱한 인물이다.

"재미있고 멋있어요. 적을 내 앞에 방해하기 때문에 죽이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남자다웠던 윤지욱이 여성이 되려고 하자 환상과 존경심이 무너져 분노해요. 악역이지만 매력적이죠."

그는 "윤지욱의 비밀을 안 후 만취해 진상 부리는 장면이 있다"며 "오그라들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감독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며 "작품마다 느끼는 건데 부족하고 다시 하고 싶다. 이것이 '만세만기'라는 생각도 한다"고 연기에 대한 고민을 보이기도 했다.

◆ SNL 19금 코믹과 예능 달라요

영화 '하이힐'의 고경표

tvN 'SNL 코리아'의 고경표

tvN 'SNL 코리아' 시즌2·3(2012)에서 19금 코믹 연기를 능청스럽게 소화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SNL에서 가장 힘들었던 연기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바지를 벗기더니 간호사가 성기에다가 손을 대고 기침을 해야하는 장면이었어요. 생방송이다 보니 NG가 나면 안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긴 하지만 웃음이 터지면 정말 답이 없죠."

그러나 코믹 연기와 예능 출연의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예능은 무리예요. KBS2 '해피투게더'에 출연했는데 우리수를 뒀더니 진지해져 버렸어요. 이야깃거리도 당시 유느님(유재석) 앞에서 더 쏟아서 고갈됐어요."

◆ 어릴때 그림 그리기 좋아했죠

고경표는 인스타그램으로 팬과 소통한다. 직접 그린 그림부터 섬오해 보이는 작품까지 다양한 사진을 게재한다.

"낙서 수준인데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감정 기복이 큰 편이죠. 우울해 보이거나 섬오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면 팬이 댓글로 걱정해요."

그는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거나 팬 카페에 가보면 귀엽다고 한다"며 아연실색했다. "멋있고 섹시하다고 하면 좋겠다"고 속내를 보이며 웃었다.

◆ 군입대는 27세 즈음

2010년 KBS2 드라마 '정글피쉬2'로 데뷔했다. 풍림고 2학년 일진 봉일태로 출연했다.

"'정글피쉬2'와 달리 평범했어요. 남중·남고를 졸업했는데 일반적인 10대 남학생이었죠. 근데 연애는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친구들이 피는 시람이 어른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연애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그는 "대학생이 돼서도 미팅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입학하자마자 여자친구가 생겼었다"고 반전 연애 경험을 말했다. 이어 "이상형은 따로 없다. 착하고 나쁜 사람하고 예의가 바른 여자였으면 좋겠다"며 "결혼을 빨리 해 젊은 시절을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고 결혼관을 설명했다.

"군입대도 27세로 계획중이에요. 제대해서 20대였으면 좋겠어요. 배우로서 자리 잡고 입대하기보다는 20대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갈 거예요."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싸이 '행오버' 빌보드 신드롬 예고

'핫100' 26위, 아시아 가수 최초 3연속 톱 30

싸이의 신곡 '행오버'가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26위로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빌보드닷컴은 28일차 빌보드 핫100에 관해 "스눕독이 피처링한 '행오버'가 이 차트에서 26위로 진입했다"고 알렸다. 아시아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서 3곡 연속 톱 30안에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빌보드는 "이 곡은 차트 점수의 90%를 스트리밍으로 얻었다"며 "미국에서 730만 건의 스트리밍을 기록해 빌보드 스트리밍송 차트 4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트리밍 중 97%는 유튜브 뮤직비디오 웹사이트인 베보를 통해서 이뤄졌다"며 "세일즈 부문에선 다운로드 수가 1만6000건에 달해 차트점수에서 100점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9일 공개한 '행오버'는 싸이와 스눕독이 함께 정통 힙합을 한 곡이다. 댄스곡 '강남스타일', '젠틀맨'과 다른 매력으로 전세계 팬에게 다가갔다.

한국 특유의 음주문화를 재미있게 그려낸 뮤직비디오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개 10일째인 19일 오전 유튜브에서 6377만 건의 조회수를 넘어서며 70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싸이는 2012년 9월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핫100에서 64위로 첫 진입한 후 7주 연속 2위를 지지했다. 후속 곡 '젠틀맨'도 지난해 4월 이 차트에 12위로 데뷔했고 5위까지 오르며 팝 시장에 자리매김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사상 최초로 20억 건을 돌파했고 '젠틀맨'도 19일까지 6억9873만 건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가수 싸이가 2014 브라질월드컵 대한민국-러시아 경기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싸이는 '행오버' 미국 프로모션 후 지난 14일 귀국해 18일 브라질 월드컵 한국과 러시아전 응원을 위해 서울 강남 영동대로에서 공연을 했다.

/전효진기자 jeonhj38@metroseoul.co.kr

공효진 교통사고로 왼팔 골절

배우 공효진(사진)이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됐다.

공효진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19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1㎞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앞서가던 박모씨의 4.5t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어 뒤따라오던 김모씨의 2.5t 화물차가 공효진의 승합차를 들이받으며 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공효진은 왼쪽 팔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공효진 외에 그의 차량 운전자 공모씨와 화물차 운전자 박씨와 김씨 등 4명도 치료를 받고 있다.

공효진은 다음달 방송될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를 촬영 중이며 이날 용인 세트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공효진의 차량에 동승한 매니저와 코디네이터, 헤어메이크업 담당자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11@

KBS 이영표 해설위원과 조우종 캐스터 /유출처스

시청자 '영표 도사'에 열광

정확 예측 이영표 KBS 중계 시청률 1위

이영표의 예언이 시청자의 채널 선택을 바꿔놓았다.

이영표가 2014 브라질 월드컵 중계 해설위원으로 나선 KBS는 18일 한국과 러시아의 H조 조별리그 1차전 경기 중계에서 시청률 22.7%(닐슨코리아·전국기준·전후반 평균)로 방송 3사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월드컵 중계는 김성주·안정환·송종국을 내세운 MBC와 차범근·차두리 배성재 콤비가 이끈 SBS가 1위를 놓고 다퉈왔다. 월드컵 중계를 처음하는 이영표와 조우종 캐스터가 간판으로 나선 KBS는 시청률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영표 위원은 정확한 분석과 차분한 경기전달로 주목을 받아 왔고 특히 각국의 주요 경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로써 '여곽두', '표스트라다무스', '갓영표' 문어표 등의 애칭까지 얻으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순호기자

'성인돌'로 거듭나는 뉴이스트

데뷔 2년만에 첫 정규 앨범 발매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가 다음달 9일 첫 정규 음반 '뉴이스트 더 퍼스트 앨범 리버스'를 발표한다.

뉴이스트 소속사 플레디스는 "이번 정규 음반은 뉴이스트가 데뷔 2년 여 만에 발매하는 것으로 앞서 선보였던 뉴이스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이스트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14일에 걸쳐 팬들에게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은 '뉴파 14일간의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뉴이스트는 19일 정규 음반 발매를 앞두고 첫 번째 티저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어 다음주부터 차례로 멤버들 개인버전 공식 티저 이미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뉴이스트 정규1집 '뉴이스트 더 퍼스트 앨범 리버스' 첫 번째 티저 이미지 /플레디스

/김지민기자 fanjk@

SteamBoy
스팀보이
김희애의 두번째 밀회
6월 22일 일요일 20시 30분
CJ 오쇼핑에서 김희애 보이를 만나러 갑니다
4계절 건강한 수면과학
스팀보이 냉온수매트
사계절 내내 사용할수 있는 냉온수매트는 없을까?
여자들의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계절 냉온수매트를 공개합니다
NAVER
스팀보이
www.ssteamboy.com
1588-9902

강호동·유재석 '맞짱' 2R

MBC '별바라기' 정규 편성… 목요일 '해피투게더'와 경쟁

토요일에 이어 목요일에도 MC 강호동과 유재석의 대결이 시작됐다.

강호동이 이끄는 MBC 새 예능 프로그램 '별바라기'가 19일 오후 11시15분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첫 방송부터 시청자의 이목을 끈 것은 바로 동시간대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와 유재석과의 대결때문이다. 현재 강호동과 유재석은 각각 토요일 오후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MBC '무한도전'으로 매주 맞대결 중이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별바라기'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진 PD는 유재석과의 맞대결에 대해 "(강호동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현재 방영 중인 목요일 예능 프로그램은 다 오래됐다. 또 상대 프로그램 MC도 워낙 잘하는 분이라 더 부담스럽다. 하지만 조반 시청률에 연연하기 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황 PD는 강호동 섭외 배경에 대해서 "장단점이 매우 뚜렷하다"며 "'별바라기'는 일반인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일반인과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했는데 강호동씨가 적격이었다. 출연자의 이야기를 듣는 걸 매우 좋아한다. 또 외모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선을 보였던 '별바라기'는 신선하다는 평가와 함께 '산만하다', '출연진이 너무 많다'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황 PD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파일럿 당시 스타 5명, 팬5명, 강호동을 제외한 패널도 5명인데 모두 3명으로 줄였다. 덕분에 토크 집중도도 높아졌다. 지난 17일 2회 녹화땐 강호동씨도 게스트를 쥐락펴락하는 '낚시 전법'을 선보이기 시작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별바라기'는 '스타(별)'와 '해바라기'의 합성어로, 스타와 관련된 남다른 추억이나 독특한 사연을 가진 팬이 연예인과 함께 출연해 꾸미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다. 첫 회 게스트는 가수 윤민수, 배우 오현경, 전 농구선수 우지원 등이 각자의 팬들과 함께 등장했다.

/김지민기자 ...@metroseoul.co.kr

'별바라기'의 임호, 송은희, 강호동, 키, 김경철 MBC

가수 정준영 새 미니앨범 '틴에이저(TEENAGER)'의 첫번째 티저 CJ E&M

정준영 예능·음악 '대세' 굳히기

전곡 프로듀싱 앨범 '틴에이저' 발표

가수 정준영이 오는 26일 새 미니 앨범 '틴에이저'로 약 8개월만에 컴백한다.

정준영의 소속사 CJ E&M은 "정준영이 '틴에이저'의 전곡을 작곡하는 등 프로듀싱에 참여한 음반"이라며 "이번 앨범을 통해 정준영이 어려서부터 즐겨 들어왔고 가장 좋아하는 음악장르인 록을 마음껏이 풀어놓을 예정이다. 그는 음악 작업뿐 아니라 전체적인 콘셉트부터 음반 재킷 디자인, 사진 촬영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기획을 진두지휘했다"고 밝혔다.

'틴에이저'의 콘셉트는 '꿈꾸는 어른'으로 정준영은 "현실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피터팬처럼 꿈을 꾸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미니 앨범은 정준영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그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는 정준영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앨범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수 본인의 아이디어가 녹아있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정준영은 컴백에 앞서 '틴에이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티저 이미지를 19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를 시작으로 나흘간 총 4개의 티저 이미지를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조영남 26년 만에 자작곡 발표

독창회 '미감'도 열어

영원한 히트맨 조영남이 신곡 '동일바보'를 내고 독창회를 연다.

26년 만에 발표한 자작곡 '동일바보'는 6·25를 겪으며 실향민의 아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무겁지 않게 녹여냈다. 이번 앨범에는 '안녕하세요', '쪽 서울', '동일바보', '어느 별에서' 등 총 4곡이 수록됐다. 6·15 공동선언날에 맞춰 15일 발표한 '동일바보'는 조영남이 녹음과정에서 몇 번이나 울컥했다는 후문이다.

조영남은 앨범 발매와 동시에 '2014 미감'이란 타이틀로 독창회를 연다. 조영남의 작품세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고품격 독창회 '미감'은 그림과 음악, 조영남의 입담까지 곁들여지는 시·청·공 감각의 융합이 이뤄지는 국내 최초 딱지 콘서트다.

게스트에는 비르디 공굴 등 17개 국제콩쿨 수상경력에 빛나는 박경준이 출연하며, 연주에는 서울대 출신의 지휘자 박상현이 이끄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맡았다.

공연은 28일 오후 7시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과 29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정성환기자 ...

J-POP 부르고, 일본도가자!

'제12회 일본가요대회' 개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한본관광신문은 올 여름 '제12회 일본가요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일본 가요를 부를 수 있는 만 40세 미만 한국인이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며 모집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잡 마니아'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의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mic@so.mofa.go.jp)로 접수하면 된다. 본선 진출자 15개 팀을 결정짓는 예선전은 다음달 18~20일에 진행된다. 예선전은 노래방 기계 반주에 맞춰 1절만 심사한다. 본선 진출자는 다음달 24일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제12회 일본가요대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본선은 오는 8월 1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에서 일반인 공개로 치러진다.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일본연수와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 장려상, 가창상, 인기상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준다. 일본연수와 입상자 부상, 관람객 경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선날에는 일본 가수 초청 공연도 열린다. 일본 애니메이션 '카오스 헤드', '쓰르라미 울 적에' 등을 부른 가수 이토 카나코와 지난해 '베사메무쵸'로 데뷔해 제 28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베스트 엔카상을 받은 카와카미 다이스케가 화려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

수명 다한 '무적함대' 끝내 침몰

16년 만에 월드컵 16강 탈락 주전 노쇠…공격 변화 필요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이 칠레까지 제대 무참히 망가졌다.

스페인은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칠레와의 경기에서 0-2로 패했다. 네덜란드전에서 1-5로 완패했던 스페인은 2패를 안으며 남은 호주와의 경기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칠레는 1차전 호주(3-1 승)에 이어 스페인까지 잡고 이번 대회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 경기에 앞서 호주에 3-2 승리를 거둔 네덜란드도 칠레와 함께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반면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국인 스페인은 이번 대회 32개 참가국 중 가장 먼저 16강 탈락을 선고받는 치욕을 맛봤다.

스페인은 경기 초반 특유의 짧고 빠른 패스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듯했지만 칠레에게 역습을 당하며 점차 분위기를 빼앗겼다. 역습 상황에서 스투패스를 받은 찰스 아랑기스가 문전으로 내준 패스를 에두아르도 바르가스가 골키퍼를 따돌리고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43분에는 알렉시스 산체스의 프리킥을 카시야스가 펀칭한 공이 아랑기스의 발 앞에 떨어졌고, 아랑기스는 이를 가볍게 골문 오른쪽으로 밀어넣어 추가점을 기록했다. 칠레에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스페인은 이렇다 할 슛도 날려보지 못한 채 경기장을 떠나야 했다.

스페인의 이케르 카시야스와 페르난도 토레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왼쪽부터)가 칠레에 패한 후 허탈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무적함대'의 몰락과 함께 티키타카의 시대도 저물었다. 2007년 루이스 아라고네스 스페인 감독은 체격의 열세를 극복하려고 짧은 패스로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티키타카를 스페인에 도입해 세계 정상급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다.

티키타카를 앞세운 스페인은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까지 제패하며 세계 축구계 최고의 브랜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티키타카의 핵심 멤버인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이상 FC바르셀로나), 사비 알론소(레알 마드리드) 등이 나이를 먹으면서 위력도 점점 약해져 갔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티키타카를 주로 사용하는 클럽인 FC바르셀로나가 지난해 5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대표주자인 바이에른 뮌헨에 패하면서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에 0-3으로 완패하면서 우려는 심화됐다.

결국 이번 월드컵에서 티키타카의 수명도 끝났다. 스페인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프랑스-스위스 지는 팀 아르헨 만나

월드컵 프리뷰

21일에는 1차전에 승리를 거둔 네 팀이 맞붙는다. 유럽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연승에 도전한다. 이들은 복병인 코스타리카와 스위스를 상대해야 한다. 한편 한 번만 더 지면 짐을 싸야 할 온두라스와 에콰도르는 끝장 대결을 벌인다.

◆ 이탈리아-코스타리카(21일 오전 1시 페르남부쿠 경기장)

객관적인 전력과 이름값에서는 이탈리아가 월등히 앞선다. 더욱이 1차전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고 잔뜩 사기가 올라 있다. 중원의 사자 안드레아 피를로가 노련미와 기술을 모두 보여주며 세계 축구팬을 사로잡았고, 골맛을 본 시고둥지 스트라이커 마리오 발로텔리의 위력은 커질 전망이다.

D조 최약체로 예상되던 코스타리카는 롯시드 우루과이를 3-1로 꺾고 선두에 올라섰다.

◆ 스위스-프랑스(21일 오전 4시 폰치노바 경기장)

사실상 E조 1위 자리를 가리는 대결이다. F조 1위가 유력한 아르헨티나와 16강에서 만나지 않으려면 조 1위를 차지해야 한다.

프랑스는 온두라스와의 1차전에서 멀티 골을 터뜨린 카림 벤제마의 골 행진에 기대를 건다. 스위스는 프랑스와 통산 전적에서 12승9무15패로 크게 밀리지 않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발로텔리(왼쪽) /AP 연합뉴스

◆ 온두라스-에콰도르(21일 오전 7시 바이샤다 경기장)

온두라스는 지난 16일 변변한 번 제대로 못 써본 채 프랑스에 0-3 완패를 당했고, 에콰도르는 다득 선전하고도 스위스에 1-2로 아깝게 졌다. 프랑스와 스위스에 밀려 E조에서 탈락할 것이 유력한 두 팀이지만 최소한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면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유순호기자

콘돔 2주만에 86만개 팔려

월드컵 이모저모

2014 브라질월드컵을 테마로 한 콘돔이 브라질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월드컵 테마 콘돔의 판매 호조로 세계 최대 콘돔 제조업체 카렉스에 화색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에서만 공급되는 이 콘돔은 개최국 브라질의 상징색인 녹색과 노란색으로 만들어졌다. 브라질 국민 칵테일 카이피리냐 맛이 난다. 이 매체에 따르면 첫번째 공급 물량 86만4000개(3개들이 28만8000팩)가 15일 만에 동이 났을 정도다. 지난 2월 판매 시작 이후 현재까지 판매량은 210만 개(70만 팩)에 달하며, 이번 주 28만8000팩이 추가로 공급된다. 가격은 한 팩에 3.15 헤알(약 1425원)로 브라질 전국의 주요 슈퍼마켓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카렉스의 브라질 매출은 올해 25%나 증가했다.

◆ 호날두 무릎 또 말썽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무릎이 말썽이다. 월드컵을 앞두고 무릎 부상에 시달렸던 호날두가 조별리그 첫 경기 이후 훈련에서 다시 무릎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9일 포르투갈 대표팀이 훈련 중인 브라질 캄피나스에서 호날두가 왼쪽 무릎에 얼음을 잔뜩 대서 붕대로 감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신문은 호날두가 절뚝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다면서 무릎 부상이 재발해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호날두가 스트레칭을 하고서 나머지 훈련에는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득점왕 1순위로 꼽혔던 호날두가 예상을 적중시킬지 의문이다. 포르투갈은 23일 미국, 27일 가나와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다.

호날두 /AP연합

◆ 축구장 육각링 변신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서 몇몇 선수들이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포르투갈 페페가 지난 17일 독일의 토마스 뮐러에게 박치기 공격을 한데 이어 카메룬의 알렉스 송이 상대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9일 오전 7시 브라질 마나우스 아레나 아마조니아에서 열리는 2014 브라질 월드컵 A조 2차전 카메룬-크로아티아 경기에서 알렉스 송은 만주키치의 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알렉스 송은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심판에게 바로 퇴장 명령을 받았다. 알렉스 송은 후회하는 듯 고개를 숙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또 이날 카메룬 선수들은 경기 중 싸우는 모습이 포착돼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서 지난 17일 페페는 포르투갈 진영에서 독일 공격수 토마스 뮐러와 볼 경합을 벌이다 팔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어 넘어진 뮐러에게 다가가 박치기 기술을 보여준 후 그라운드를 떠났다.

/정생훈기자 jpw@

홍명보호 '2차전 징크스'는 없다

역대 월드컵 4무4패 심적부담 털자
이영표 "알제리 빠른 역습 막아야"

홍명보호가 월드컵 2차전 첫승 사냥에 나선다.

역대 월드컵 본선 2차전에서 이긴 적이 없는 한국 대표 선수들은 23일 알제리전에서 선배들의 불운했던 전통을 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역대 2차전 성적은 4무4패다. 4년 전 대회에서도 그리스를 2-0으로 이긴 뒤 아르헨티나와의 2차전에서 1-4로 패했다.

4강 신화를 일군 2002 한일 월드컵에서도 미국과의 2차전에서 1-1로 힘겹게 비겼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월드컵 본선 첫 승 상대로 점찍었던 볼리비아와 0-0으로 비겼다. 1998년 프랑스에서는 네덜란드에 0-5 참패를 당했다.

최초의 월드컵 진출인 1954년 스위스 대회에서는 터키에 0-7로 최악의 패배를 맛봤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스페인에 1-3으로 졌다.

가장 큰 성과를 거둔 2차전은 1986년과 2006년 대회다. 1986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불가리아와 1-1로 비기며 역대 월드컵 최초의 승점을 따냈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박지성의 동점골로 강호 프랑스에 비기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느낌 아니까" 2014 브라질 월드컵 첫 경기 러시아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19일 오전 베이스캠프인 브라질 이구아수의 페드로 바소 경기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회복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전에서 유독 약했던 이유는 강팀과의 대결이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지면 탈락이라는 부담감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알제리전 역시 패할 경우 16강 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제리전을 앞둔 선수들에게는 육체 훈련은 물론 심리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한국이 역대 월드컵 2차전에서 아프리카를 상대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징크스 극복도 예상된다. 2006년 토고를 2-1로 꺾었고, 2010년 나이지리아와 2-2로 비겼다. 월드컵에서는 아프리카 팀에 패한 적이 없다. 단지 본선 직전 평가전에서 튀니지와 가나에 연패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날카로운 경기 분석과 예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알제리의 빠른 역습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여러가지 공격 형태 중에 알제리는 역습에 강하다. 알제리의 전체 득점에서 역습 골이 가장 많았다"며 "선수 모두가 빨리 한국이 공을 빼앗겼을 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18일 러시아전에서 기성용이 옐로카드를 받고 주심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호 '카드발급' 막아라

2014 브라질 월드컵 32개 참가국이 모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며 7부능선을 넘었다.

16강 진출을 위해 치열한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는 물론 축구 팬의 응원 열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전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태극전사들에 옐로카드 경계령이 내려졌다.

18일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H조 러시아와의 첫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무려 석 장이나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손흥민(레버쿠젠), 기성용(스완지시티), 구자철(마인츠) 등 핵심 전력이 줄줄이 받았다.

러시아가 반칙 15개를 저지르고도 경고는 1장만 받은 반면 한국은 7차례 반칙에 세 번이나 경고를 받아 반칙 관리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옐로카드 두 장이 쌓이면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손흥민이나 기성용·구자철이 알제리와의 2차전에서 경고를 받는다면 벨기에와의 최종전에서 뛸 수 없다는 이야기다. 16강 진출을 위해 남은 두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홍명보호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옐로카드 주의보는 홍명보호의 문제만이 아니다.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네덜란드 로빈 판 페르시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볼 수 없게 됐다. 호주의 팀 케이힐도 마찬가지다. 모두 경고 누적 때문이다.

/서승운기자 [illegible]

류현진 물방망이 상대 9승 진격

23일 팀타율 최하위 샌디에이고 등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메이저리그 전체 팀 타율 최하위(30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시즌 9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5시 10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전에 선발로 나선다.

MLB닷컴은 19일 류현진을 23일 다저스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지난 17일 메이저리그 전체 팀 타율 1위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1실점의 호투로 시즌 8승(3패)째를 수확한 류현진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5일 휴식 후 등판' 일정으로 샌디에이고와 맞선다.

류현진은 지난해와 올해 5일 휴식 후 등판한 11경기에서 9승 1패 평균자책점 1.99를 기록했다. 4일을 쉬고 나선 경기(21경기 8승 7패 평균자책점 3.91)나 6일 이상 쉬었을 때(11경기 5승 3패 평균자책점 2.60)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좋다.

이기에 샌디에이고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류현진은 4월 1일 펫코파크에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해에는 다저스타디움에서 한 차례(9월 1일) 만나 6⅓이닝 8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공교롭게도 류현진 등판 1시간 10분 전인 23일 오전 4시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알레그리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알제리와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예선 2차전을 펼친다.

/정용운기자

프로야구 전적 19일

■잠실

LG	200	110	400	8
두산	020	000	000	2

[illegible]

■문학

삼성	004	210	010	8
SK	000	000	300	3

[illegible]

■광주

넥센	000	001	000	1
KIA	010	000	11X	3

[illegible]

■마산

롯데	105	000	100	7
NC	001	111	010	5

[illegible]

tvN 금토드라마
tvN
연애 말고 결혼
남 일인 듯 남 일 아닌
밀당 전문 로맨스
한그루 | 연우진 | 정진운 | 한선화 | 허정민 | 윤소희
7/4 [금] 저녁 8시 40분 첫 방송